

고구려대학교 "도제식 코칭 프로그램" 운영

지도교수 전공분야 소그룹 집중 실무교육인 '도제식 코칭프로그램'으로 취업 걱정 사라져

고구려대학교(총장 김형배)는 학생들이 대학 입학부터 졸업할 때까지 도제식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전공 교수와 학생, 산업체가 하나가 되어 현장실무 전공분야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구려대학교의 도제식 코칭 프로그램은 도제에 적합한 학생들을 지도교수가 직접 선발하여 소그룹을 구성하여 멘토가 되어 꾸준한 집중 교육을 통해 본인의 전공분야 지식과 기능들을 전수함으로써 고품질의 현장교육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이 취·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이다. 도제란, 어려서부터 스승에게서 직업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을 배우는 직공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로 도제는 apprentice 이고, 그 의미는 works for an expert to learn a trade이다. 도제식 교육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방식으로 도제관계(장주와 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면서 기능을 배우는

장공 사이의 사제 관계)와 같이 제자가 스승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지식과 기능을 배우는 방법이나 방식이다.

김재근 교무기획처장은 "고구려대학교의 교수와 학생의 도제식 코칭 프로그램은 특히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현장에서 실제 활용되는 맞춤형 기술·지식을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프로그램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고구려대학교 도제식 코칭 프로그램은 입학부터 졸업할 때까지, 단계별로 운영되는데, 먼저 1학년 1학기에는 학습역량강화와 실무능력을 위한 학습지도 코칭 프로그램을, 2학기에는 자아성장과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을 위한 학습지도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학년 1학기에는 취·창업 능력 및 현장 적응력을 강화를 위해 취·창업 코칭 프로그램을, 마지막 2학기

에는 산업현장 맞춤형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해 도제식 실습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리고 도제식 코칭 프로그램에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학기 참여자(학생, 교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피드백(Feedback)을 통해 차기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된다. 한편 고구려대학교 도제식 코칭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어학과정 ▶튜터링 ▶세어하우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진로·상담 프로그램으로 개별상담 및 ▶내안의 나 찾기 ▶타인이 해하기 ▶분노조절하기 ▶생태영성체험 ▶진로상담 등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취·창업자 프로그램으로 ▶자격증과정 취·창업특강 ▶동문기업 탐방 및 CEO특강 졸업작품전 취업사례 공모전 등을 운영하여 매년 취업률이 3% 이상씩 상승하고 있다. /강민희 기자

고구려대학교, 제19회 학위수여식 거행



고구려대학교(총장 김형배)는 2월 13일(금) 11시 교내 대강당에서 2014학년도 제19회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정흥기 학생취업처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학위수여식은 신정훈 나주·화순 국회의원, 강인규 나주시장, 홍철식 나주시의회 의장, 오인성 나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중환 국립나주박물관장, 한영기 KT나주시지사, 그리고 학교법인 아신학원 고영을 이사장, 김형배 총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교직원, 졸업생, 학부모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학사보고(김재근 교무기획처장), 학위증서 수여(유아교육과 최은지 외 896명), 총장상(치위생과 박성현), 최우수상(공연예술복지학부 김소인), 우수상(호텔조리영양과 오다영 외 16명) 시상 및 신정훈 국

회의원, 강인규 나주시장, 홍철식 나주시의회 의장, 오인성 나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축사로 진행되었다. 김형배 총장은 회고사에서 "힘난한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때로는 좌절과 시련의 순간도 올 것이나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 아니며 여러분 뒤에는 고구려대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졸업생들이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통해 전문직업인으로서 국가와 사회, 직장과 가정의 디딤돌로 봉사하며, 진취적인 기상과 건전한 사고로 세계화 시대를 당당히 앞장서는 고구려대학인이 되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정훈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졸업생 여러분들 모두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꿈꿔왔던 목표가 사회생활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그 힘으로 우리지역과 대학이 함께 발전해 나가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민희 기자

고구려대학교, 2015학년도 입학식 개최



고구려대학교(총장 김형배)는 3월 2일(월) 대학 대강당에서 고영을 이사장, 김형배 총장, 김종우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보직교수, 신입생,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하였다. 치위생과 40명 등 17개학과 주·야간 총 1,020여명이 입학했으며, 조용 입학홍보처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입학식은 개식사를 시작으로 김형배 총장의 입학허가 선언, 신입생 선서, 장학증서 수여, 환영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

되었다. 입학선서는 치위생과 김민재 학생(19)이 신입생을 대표해 "학칙을 준수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인류사회에 봉사하고 산업사회 건설에 기여할 증견전문인이 되기 위하여 학문과 기술의 연마에 정진할 것"을 선서했다. 이어서 진행된 장학증서 수여는 최명진 총학생회장과 김민재 학생이 전체 학생을 대표하여 증서를 전달받았으며, 대학측은 2015학년도에 재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으로 18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확보된 장학금

은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배 총장은 "고구려대학이 광주·전남 혁신도시 중심대학으로 『대학특성화, 교육차별화(NCS), 교육환경개선, 핵심역량강화, 행·재정효율성 제고, 대학SQ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발전하기 위하여 고구려대학의 교직원들은 대학의 모든 핵심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입생들에게 "첫째, 그릇을 채우려고 하기 보다는 그릇 자체를 키우기 위하여 노력할 것과 둘째,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잎을 틔우는 긴 여정의 시작임을 잊지 말아줄 것과 셋째, 자신을 사랑하며 꿈을 가지고 성실하게 교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성실하게 공부하여 즐 것"을 당부했다. 이날 신입생들은 입학식 행사 후 각 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대학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행사는 학사일정 수강신청 및 포러닝 동아리 도서관 편의시설 학생복지 지원센터 등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제공으로 진행되었다. /정혜진 기자

고구려대학교, 김형배 박사 제8대 총장 취임식

학교법인 아신학원(이사장 고영을)은 3월 6일 11:00에 영암 기찬랜드에서 고구려대학교 제8대 총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김형배 총장 취임식에는 아신학원 김광아 설립자, 고영을 이사장, 장흥·강진·영암 황주홍 국회의원, 전동평 영암군수, 은사이신 유영권 연세대학교 교수를 비롯하여 내외 귀빈 및 교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재근 교무기획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취임식은 임명장 및 교기전달, 취임선서, 꽃다발 증정, 취임사, 김광아 설립자의 격려사와 축사는 황주홍 국회의원, 전동평 영암군수, 유영권 연세대학교 교수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형배 총장은 전남 영암 출신으로 영문학 박사(조선대)를 취득한 후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석/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1995년 고구려대학 교수로 임명된 후 법인처장, 교무기획처장, 부총장, 총장 등을 두루 거치면서 대학 행정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다. 김형배 총장은 "어려운 시기 다시 한번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

낀다"면서 우리 대학 구성원들의 잠재력과 능력을 믿고 있으며, 총장으로서 (대학의 모든 핵심역량을 결집하여) 고구려대학을 경쟁력 있는 우수한 취업중심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형배 총장은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변화를 통하여 대학구성원들과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진정성과 도덕성을 존중하는 총장이 될 것을 약속하였으며, 경천애인의 정신으로 하늘을 경외하며 우리세상을 내 몸 같이 사랑하겠다"고 말했다. 김형배 총장은 "대학의 모든 핵심역량을 결집하여 행·재정 효율성 제고, 교육환경 개선, 학생역량강화, 교육차별화, 대학 특성화, 대학SQ평가 등 대학 발전 6대 핵심과제를 반드시 수행하여 우리 대학이 교육중점대학, 지역봉사대학, 글로벌명문대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더 나아가 세계화 교육의 심화 발전을 위해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복수학위를 위해 자매 대학과의 교류 역시 활발하게 진행시키겠다"고 말했다.

고구려대학교,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 눈길 끌어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초 중등학생 장학금 지급으로 지역사회 신뢰관계 구축

광주 전남공동혁신도시 나주의 고구려대학교(총장 김형배)는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봉사중점대학'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 사회봉사단을 창단하여 소외계층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을 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고구려대학교는 지역사회 인재 발굴과 후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초 중등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7일 제16회 나주시 다시면민의 날 행사에서 평소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하며, 매사에 솔선수범하고 급우를 배려하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 7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장학금을 수여 받은 나주시 다시면 이모(16, 여)

학생은 "특별히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받게 되어 기쁘지만 다른 학생들에게 미안하고, 꾸준히 남을 먼저 생각하고 돕는 일에 앞장서고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배 총장은 "자신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학생들이 자랑스럽다"고 하면서 "장학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양성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구려대학교는 술래문화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 지역 소외 아동계층의 힐링교육사업 봉사동아리 봉사활동 찾아가는 의료봉사 중 고생 진로직업체험 교육 교육기부 특강 중국어 교

육봉사 교원의 전문기술 지원 대학시설(도서관, 운동장 등) 개방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베트남 라오스 등 해외의 지역에서도 활발한 사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고구려대학교는 전국 대학 최초로 재가노인복지봉사센터를 설립(1999년)하여 학생들의 자원봉사 정신을 구현하는 농촌지역의 독거노인 보호프로그램을 시행하였으며, 지금은 연간 약4000여명의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봉사중점대학으로서 대학의 사회적 책무와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농촌노인복지의 새로운 모델로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편집부

고구려대학교 "셰어하우스 프로그램" 운영

"유학생들의 자국어 교육을 통한 어학교육의 질적 향상"

고구려대학교(총장 김형배)는 기숙사 거주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통한 명품인재 양성에 목적을 두고 셰어하우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국제화사회의 교육의 다양성에 의해 경쟁력을 갖춘 학생의 양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고구려대학교는 급변하는 어학 패러다임을 구현하고, 다양성을 요구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습 환경을 구축 하고 특히 어학 능력을 갖춘 유능한 전문 직업인 양성이란 본교의 비전과 목표에 맞추어 학습자 지원을 우선으로 하여 학습자를 전문적인 직업역량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로 양성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 운영 중이다.

이에 고구려대학교는 외국 유학생과 재학생을 하나의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 기숙사 셰어링프로그램을 구축, 맞춤형 기숙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본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초창기에 유학생과 재학생 틈새 어링을 통하여 효율적인 언어습득의 기반을 형성하는데 주력하여 자발적인 교수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온라인, 스마트폰, SNS 등 최첨단 정보 매체를 활용한 언어교육 환경을 구축하며 꾸준히 발전해 나가고 있다.

한편 셰어하우스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재학생의 외국어 습득에 도움을 준 유학생들에게 셰어링장학금을 지급하여 유학생들의 사기 진작과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고 재학생에게 대학생 활의 만족도를 높이고 외국어 습득에 대한 의지를 강화시키고 있다.

/정해진 기자

고구려대학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수행기관 선정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수행으로 지역사회 사랑과 봉사 실천"



고구려대학교(총장 김형배) 노인복지센터(센터장 박송희 교수)는 나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및 독거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인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나주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위한 안전확인 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화교육 독거노인 현황조사 지역 내 복지서비스 현황조사 고위험 독거노인 집중관리 등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49명의 생활관리사가 1100여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수행하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주기적 방문 및 안

부전화, 기구점검 및 사용법 안내, 생활환경 정비, 연락체계 구축, 서비스 연계 및 조정,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사후 점검, 자원 발굴, 월1회 이상의 생활교육, 독거노인 지원카드 작성 및 주기적인 업데이트 실시,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자원 발굴, 정서지원 및 건강증진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1일 1회 치매등록자 투약확인관리, 월 1회 자살·학대 고위험 독거노인 방문확인 등이다. 박송희 노인복지센터장은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의 마음을 가진 개개인들이 봉사를 실천하고 이웃에게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고구려대학교의 노인복지센터가 노인복지의 밑거름이 되어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에게 도

움을 줌으로써 진정한 노인복지의 싹을 틔우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영강동 부영아파트의 박모(76세, 여) 할머니께서는 "나이 들어 외롭고 허전한 마음이 들기도 했었는데 자식같이 살뜰히 보살펴 줘서 학교와 생활관리사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영강동 일대의 서비스를 맡고 있는 김모(41·여) 생활관리사는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즐겁게 봉사하고 있다"며 "가족들의 외면으로 홀로 죽음을 앞두신 어르신을 발견하고 옆에서 임종을 지켜드렸던 일(2014년, 영강동 박모 어르신)을 보람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구려대학교 노인복지센터는 1999년 2월 설립 이후 꾸준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연간 약4000여명의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구가정봉사원파견사업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홀로사는노인 안부살피기 응급안전서비스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장기요양보호사업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봉사중점대학으로서 대학의 사회적 책무와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정해진 기자

고구려대학교, 해남군 군민대학 개강식 개최



고구려대학교(총장 김형배)는 4월 6일(월) 평생교육원 해남분원에서 제11기 해남군군민대학 개강식을 가졌다. 개강식에는 김형배 총장, 양재승 해남군 부군수를 비롯한 내외 귀빈과 보직교수, 수강생,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커피바리스타 과정 25명 등 11과 과정에 250명이 등록했으며, 이날 개강식은 개회를 시작으로 한현은 평생교육원장의 경과보고, 장학증서 수여, 김형배 총장의 개식사, 양재승 해남군 부군수의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제11기 해남군민대학에 등록한 수강생 중에서 만 70세 이상의 군민대학생들에게 납부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장학증서를 전달하였으며, 대학 측은 이번 장학증서 전달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군민대학 수강생들에게 학습의욕과 지역리더로서의 자긍심

을 고취시키고, 지역민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많은 수강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군민대학은 커피바리스타 심리상담사 공인증개사 아동청소년심리상담사 실버건강지도사 등의 자격증 과정과, 컴퓨터기초일반 현대사주명리학 컴퓨터활용심화 DIY나무이야기 퓨전난타 등의 일반과정, 해남희망원 생활인 대상 강좌인 소외계층 엔돌핀 건강웃음체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12주 동안 의미 있는 배움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형배 총장은 "자신의 꿈과 이상을 저버리지 않고, 탐구하는 노력을 계속하는 군민대학 수강생들이 자랑스럽다"면서 "지역의 선도자로 나설 여러분의 의지와 열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사설

스마트 시대 소통하라

웨어러블 디바이스, 창조경제 활성화의 촉매제

우리사회는 스마트(Smart) 시대에 접어들고 있고 스마트 시대에 맞는 소통(Communication)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스마트 시대에 유행하고 있는 용어가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이다. 이는 웨어러블 산업으로 나타나는데 제조, 소프트웨어, 패션, 디자인, 콘텐츠, 영역이 어우러진 융합산업으로 지적할 수 있다.

경제 활성화의 핵심적인 가치로 볼 수 있는 '상상력', '융합', 등

으로 특징 지워지는 유망한 산업 분야인 웨어러블 산업은 '기업가 정신'이 구체화 될 수 있는 창조경제 활성화의 촉매제로 역할 할 것으로 여겨진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한 각종 산업들의 등장과 활성화는 이유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소통하는데 있다. 마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것이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미래사회의 한 단면을 미리 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의료기기 및 스마트 폰과 연계해 문자, 이메일, 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기기를 제어하는 형태에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방, 소방 등 고위험 환경에서 필요한 의복, 장구류 및 사물 간 커뮤니케이션에 기반한 다양한 생활/문화 제품으로까지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세계시장 규모도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범위를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사회 전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러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

한 각종 장비나 산업들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력 수준은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정도로 다른 장비들의 보조적 수단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웨어러블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요소기술 및 관련 소재·부품의 개발 역량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통을 잘하는 미래 기술의 총아로 여긴다면 오히려 이러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행태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그 본질을 망각하게 되면 소통하고자 개발한 웨어러블 산업들은 오히려 소통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용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활용하는데 사용되어 진다면

좋겠지만 이러한 유용한 콘텐츠의 활용을 방해하는 장치로서도 작동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한 사례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internet)의 활용의 사례에서 보여 지듯이 늘 긍정적인 결과와 효과를 가져 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은 역사적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활용은 '상상력'과 '융합'이라는 특징으로 다양한 제조, 소프트웨어, 패션, 디자인, 콘텐츠의 융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이러한 과정이 모두 소통을 원활히 이루어야한다는 본질에 기반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발전은 그 방향이 소통하는데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고구려대학교 신윤길 교수 교육부장관 표창장 수상



고구려대학교 신윤길 교수(다문화복지과)가 2015년 2월 16일 태평양아시아협회(PAS, 회장 정동구)가 주최하고 교육부 외교부가 후원한 제18기 월드프렌즈 PAS청년봉사단 귀국보고 행사에서 대학생 해외봉사 분야업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하였다.

신윤길(고구려대학교 다문화복지과 교수)는 태평양아시아협회(PAS)에 2012년 가입하여 해외봉사단 단장으로 2012, 2013, 2014년 라오스 루앙프라방 지역에 봉사단 단장으로 파견되어 학생들과 봉사활동(한

국어교육, 문화교육, 노력봉사)을 통해 국위를 선양하였으며, 학교에서도 사회봉사단장을 역임하며 봉사활동을 생활화 하는 등 국가 위상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태평양아시아협회(PAS)는 우리나라 미래의 희망인 대학생들을 차세대 글로벌리더로 양성하고자 하는 취지 아래 1994년 7월 설립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9,000여명에 이르는 우수한 대학생들을 태평양아시아지역 12개 국가에 해외봉사단으로 파견하였으며, 한국어교육 문화교류, 스포츠 지도 등의 봉사활동을 통해 각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호친선을 쌓음으로써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데 공헌하고 있다.

/편집부



교/수/등/정



사회복지상담과 박송희교수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자격 심의 위원장으로 활동
국민연금관리공단 나주시사(나주시, 영광군, 함평군).
(2014. 8. 1 ~ 2017. 7. 3.)

한국청소년보호연맹 전남연맹 창립식 고구려대 조용 교수 초대회장 취임

"지역상담센터를 개설해 청소년 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



한국청소년 보호연맹 전남 연맹(조용 연맹장) 창립식이 4월 3일 세한대학교 목포교육원 강당에서 치러졌다. 이날 열린 창립식에는 김기태 부총장, 김길연 사무총장, 대한노인회전남연맹 강갑국 수석부회장, 최삼동 순천경찰서장 등의 귀빈과, 청소년연맹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전남연맹은 연맹장 조용교수(고구려대학교 입학홍보처장)와 최용희 강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정종국 중앙직업학교 이사장, 최영수 세한대 교수등 세명의 부연맹장이 전남연맹을 이끌게 된다.

김기태 한국청소년보호연맹 부총장은 축사로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를 이끌고 나가야 할 청소년들이 더 이상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노력해야 할 때이다. 전남연맹의 창립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나갈 것이다.

맞춤형 청소년보호 서비스로 가출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로의 빠른 복귀와 실질적인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기초작업을 하겠다. 3년쯤 후엔 성숙된 연맹으로 발전되어 있을 것이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청소년보호연맹은 청소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정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며, 청소년보호사업을 민간차원에서 측면 지원해야하는 시대적 요청과 문제의식을 깊이 인식하고 회원들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청소년보호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한데 모아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보다 진보된 조직과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다.

/정해진 기자

고구려대학교신문

"이 신문은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발행인 | 김형배 편집인 겸 주간 | 강철수
인쇄인 | 탁영환 편집장 강민희
대표전화 | 061-330-7431
E-mail cskang@kg.ac.kr
기사제보 및 원고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백호로 125
본관 409호실 고구려대학교신문사

* 지면안내 : 68-1호부터 신문전자에서 타블로이드판으로 사이즈를 변경하여 발행합니다.

학과/특집 ▶ 조경학과

토목조경과 교수진 "릴레이 특강" 프로그램(1차) 운영



토목조경과(학과장 김상범)는 2015년 4월30일(목) 오전 09시부터 오후 15시까지 강의실에서 전임교수진으로 편성된 "릴레이 특강"이 실시되었다.

"조경산업의 현황과 진로모색"이라는 주제 외 "자격증 취득과 관련 산업현장에서 건설공사 실무이해"라는 강좌 등으로 편성된 "릴레이 특강"은 김상범교수의 조경산업의 현황과 진로모색, 국가 직무능력표준(NCS) 도입에 따른 실행 과제, 학습경로, 교육과정

직무역량/공간, 학습자 등에 따른 유연성으로 다양한 형태의 기초 역량, 메타인지적 능력의 개발/모듈식 교육과정 운영인력 수요(양)와 직무체계(질)에 기반을 둔 교육훈련 이해 등을 시작으로 흥현승교수의 조경수목학 및 관리, 조경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대비, 운영석교수의 조경계획(동/서양조경사) 특론, 조경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대비, 마지막으로 김강석교수의 건설공사 관리 실무, 착공업무(공사수행관련 대관/가설관련), 본공사업무(공사행정/공사관리/자재 및 중기관리, 품질관리(안전 및 노무관리), 준공업무(준공처리업무/하자보수시 유의사항) 특강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맞춤형 취업 및 자격증 취득 준비생을 위한 멘토링 등은 사제간 공감

대형성, 소통부여(동기 부여)의 장이 되었다.

또한 과거 조경산업의 현황과 학과의 발전과정을 들으며 미래 조경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NCS(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활용과 교육과정으로 기업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맞춤형 글로벌 기술인재를 양성 및 실무경험이 풍부한 교수진별로 이론, 실무소통하는 별도의 OJT(직장 내 교육훈련) 대비훈련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재학생 및 졸업생을 포함 100여명이 참석하여 큰 호응을 받았으며 2차 강좌에도 큰 기대를 모으면서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학과/특집 ▶ 치위생과

제11회 고구려대학교 예비치과위생사 선서식



2015학년도 제 11회 예비 치과위생사 선서식이 2015년 4월 1일(수) 15:00, 본교 본관동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본교 치위생과 2학년 재학생들은 임상실습 전에 희생과 봉사를 의미하는 치과위생사 휘장인 편을 수여받고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아픔을 나누겠다는 촛불의식을 진행하였다.

이어 예비치과위생사의 윤리와 국민건강증진 및 학업에 충실할 것을 선서하였다.

이날 선서식에는 김형배 총장님 및 치위생과 교수님, 치위생과 선후배, 내·내외빈의 축하 속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박문숙 학과장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가슴에 꽂은 편 의미의 의미를 되새기고 치과위생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여 올바른 삶과 자세를 가지길 바란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학과/특집 ▶ 사회복지과

고구려대학교 사회복지과, 릴레이식 온정의 손길 펼쳐

"사회적배려계층 중·고등학교신입생들에게 교복 지원으로 지역사회 사랑과 봉사 실천"

고구려대학교(총장 김형배)는 저소득층 가구와 한부모 가정의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들의 교복을 구입하여 지원하였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함평군 학교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알게 된 학다리중학교 신입생 중에서 사회적배려계층인 기초생활수급가정, 차상위가정, 한부모가정의 6명과, 광주지역의 수피아여고 신입생 2명으로 총 8명이 선정되어 혜택을 받았으며, 사회복지과 교수들과 학생들이 기부에 참여하였다.

이번 교복 지원은 학교지역아동센터의 양모군(학다리중학교 1학년)의 감사 편지로 인해 알려지게

되었으며, 양군은 편지에서 '엄마와 살고 있어서 교복이 많이 걱정되었는데 지원해 주셔서 중학교에 편히 갈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면서 '앞으로 이 교복을 입고 공부 더 열심히 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사회복지과 학과장(유경아)은 '센터와 논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인 교복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사랑과 봉사를 실천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다'며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가벼운 마음으로 학업에 열중하기 바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학업에 매

진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구려대학교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연간 약4000여명의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슬래문화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 지역 소외 아동계층의 힐링교육사업 봉사동아리 봉사활동 찾아가는 의료봉사 중고생 진로직업체험 교육 교육기부 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베트남 라오스 등 해외 지역의 활발한 봉사활동으로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지역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산/업/시/찰

"함평 나비 축제"



2015년 5월 7일 목요일 고구려대학교 치위생과 1,2,3 학년 전체 학교 행사로 함평 나비 축제에 다녀왔다. 오전에는 보성 녹차밭을 다녀오고 점심식사로 2시까지 별교에서 꼬막 정식을 먹고 2시10분쯤 함평으로 이동 하였다. 2시40분쯤에 도착하여 인원 파악 후, 매표소 앞에서 티켓을 배부하고 자유롭게 구경 하다가 5시30분에 모이기로 하였다.

함평은 처음 가본 곳이라서 설레기도 했고 궁금하기도 했다. 오후 인 만큼 힘이 들기도 했지만, 나비 축제도 처음이라 열심히 구경을 했다.

〈함평 나비축제〉에선

체험행사(무료) : 동물농장 체험, 농경사회문화전시, 체험 전통 민속놀이 체험, 추억의 음악 DJ 박스, 다문화가족의상체험 및 놀이 체험
 체험행사(유료) : 사랑 앵무새 먹이 주기 체험(2,000원), 관광 열차 타기 (1,000원~2,000원), 사랑의 우체국통 체험 (1,000원)

일반 행사 : 함평 군립 미술관, 숲속의 곤충 마을 운영, 찰칵 축제를

즐거려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고, 전시회 같은 곳들은 큰 건물에 배치되어 있었고, 안에는 나비 그림들과 곤충들 1급수에서만 사는 물고기들이 있었다. 밖에선 독일, 일본, 미국 등 다양한 나라의 음식들을 팔고 계셨고, 곳곳마다 기념품들과 먹거리들이 많았다.

나비 타투를 할 수 있는 곳도 있었고, 페이스페인팅을 할 수 있는 곳도 있었다. 페이스페인팅을 하지 못했던 것이 제일 아쉬웠다. 이날은 다른 학교에서도 놀러오는 곳이 많았고, 가족끼리 놀러 오는 분들도 많았다. 축제인 만큼 날씨도 따듯을 넘어 더웠고 화장했던 날이었다. 3학년 마지막을 힘들었지만 그래도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어서 좋았다.

교수님들과 맛있는 점심도 같이 하고, 친구들과 사진도 많이 찍고 나중에 졸업해서도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평생교육복지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찾아 봉사활동



이상 노인 빈곤율이 48.6%로, 노인 10명 중 5명 정도가 빈곤노인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이 절실하다면서 '지난번에도 고구려대학교의 여교수님들께서 자녀들을 데리고 오셨었는데, 오늘도 학생들이 먼 곳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설을 찾아와 어르신들과 함께 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봉사에 참여한 이순화 학생은 '이 곳에 계신 어르신들이 좀 더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시설 곳곳을 청소하고 말벗과 안마를 해드리면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하면서 '이번 봉사활동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하나인 『순창 우리노인공동생활가정』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및 기능훈련과 공동생활을 통해 자립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시설로서 지난 2011년에 설립되었고, 현재 치매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9명의 어르신들을 5명의 전문 종사자들이 돌보고 있다. /편집부

고구려대학교(총장 김형배)는 지난 7일 어버이날을 맞아 전북 순창 소재의 우리노인공동생활가정(원장 정옥식)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평생교육복지과(학과장 이명자) 이순화 외 14명의 학생들은 준비해 온

다과를 전달하고, 어르신들에게 말벗 되어 드리기 안마 해드리기 다과 및 식사 수발과 실내 청소하기 실외 잡초 제거하기 등을 각자 역할을 나눠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우리노인공동생활가정의 정옥식 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65세

고구려대학교 사회봉사단 글로벌 봉사활동 민간교류 역할 베트남 호치민 쿠에후옹(QUE HUONG) 고아원에서 구슬땀 흘려



고구려대학교(총장 김형배)의 사회봉사단 학생 36명은 지난 7월 3박5일 일정으로 베트남의 호치민시에 있는 쿠에후옹(QUE HUONG) 고아원을 방문하여 해외봉사활동을 펼쳤다.

고구려대학교 사회봉사단 해외봉사프로그램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총9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주로 우리나라에 다문화 여성이 많은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의 어려운 시설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현장 실습활동 프로그램이다.

이번 해외봉사활동에 참여한 36명의 학생들은 주로 다문화복지과 학생들로 구성되었으며, 학생들은 3일 동안 300여명의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식사준비, 놀아주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시설 외부 페인트칠하기 등 각자 역할을 나눠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원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다문화복지과 이혜경 학생은 "지난 2011년 이곳을 방문했던 선배들이 아이들에게 꼭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였는데 그 약속을 지키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러한 해외봉사활동이 우리 대학의 전통과 자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쿠에후옹(QUE HUONG) 고아원(원장 티홍, Huong Tieu Huynh)은 "우리는 그때 한국에서 온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을 마음으로 안아 주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올 줄은 몰랐어요. 너무 감사 합니다"라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고구려대학교는 매년 2번씩 사회봉사단 해외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지구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하고, 공동체 의식의 고양은 물론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통해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편집부

"녹색경관 관리를 위한 조경관리기능전문가" 양성교육과정 개강식



고구려대학교 산학 협력단에서 주관하고 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해남군이 주최하는 "녹색경관 관리를 위한 조경관리기능전문가" 양성교육과정이 고구려대학교 해남평생교육원에서 2015년 3월 31일 개강식을 가졌다. 지난 1월 26일 고용노동부 목포고용센터 대회의실에서 사업 지원약정서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

포지청, 해남군, 고구려대학교산학협력단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지원약정식을 가졌으며, 사업비 국비 1억원과 자치단체 부담금 15,000천원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 1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교육생 30명을 모집하여 총교육시간 260시간으로 실습 165시간, 이론 95시간, 교수진은 토목조경학과 홍현승 총괄책임교

수로 산림자원연구소박사, 파인비치골프장시설담당임원, 토종식물연구소소장, 조경기능장과 분야별 담당교수진으로 조경기능사 시험과 조경관리전문가를 양성하여, 조경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의 이미지 개선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다. /편집부

원/고/모/집

여러분의 글, 학우들의 재밌고 감동적인 글을 기다립니다. 자유로운 글로 누구나 웃고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이야기를 모집합니다.

주제 : 자유 글(시, 감상문, 수필, 논설문 등)

전화 | 061-330-7431
E-mail cskang@kgrc.ac.kr

기사제보 및 원고
전라남도 나주시 대신면 백호로 125
본관 409호실 고구려대학교신문사

2015년도 고구려 대학교 연합 MT



으며 5시30분에 게임이 끝나고 저녁밥을 먹은 후에 6시30분쯤에 운동장에 나가서 팀별로 대결하는 게임이 진행되었다.

밤에 게임을 해서 많이 추웠고, 진행이 수월하게 되지 않았던 것 같았지만 재미있었다.

게임이 모두 끝나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 강당에서 진행될 총학생회 출범식 및 장기자랑등이 진행되었다. 다양한 음식들을 먹으며 장기자랑과 외부에서 섭외된 댄스팀과 랩하는 분들이 오셔서 엔터티를 더욱 재밌게 해주신 것 같다. 모든 장기자랑이 끝나고 1,2,3학년 단체사진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그후에 치위생과 선후배들간의 대면식이 있었고, 이렇게해서 즐겁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재밌게 했던 것 같다.

2015년 3월 25일(수)~26일(목)에 고구려대학교 연합MT일정이 잡혔다. 본교 120명 재학생들과 총장님 및 교수님들이 함께하는 자리였다. 3월25일에 오전10시30분쯤 기숙사에서 출발하여 점심시간 때쯤에 화순 안양산 자연 휴양림에 도착했다.

먼저 도착하여 방배정을 하고, 점심시간이 되어 점심밥을 먹은 후에 1시쯤 강당에 모여 여 팀을 정하고 게임이 진행 되었다. 강당 안에서 팀들의 구호를 정하고 간단한 게임을 한후, 야외에 나가서 사진 촬영하는 게임이 진행되었

카네이션 꽃말, 색깔에 따라 달라... 어버이날 선물 1위는?



5월8일은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이날 만큼은 행복하게 해드리는 날인 것 같다. 어버이날 하면 생각나는 카네이션..! 카네이션을 보면 다 똑같이 붉은 것이 아니라 분홍색, 흰색도 볼수 있다. 카네이션의 꽃말은 '모정, 사랑, 부인의 애정'이고 카네이션의 색깔마다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장 일반적인 빨간색은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건강을 비는 사랑을, 분홍색은 '당신을 열렬히 사랑 합니다'를 뜻한다. 또한 흰 카네이션은 '나의 애정은 살아 있습니다'를 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한 어버이에게는 빨간색 카네이션, 돌아가신 어버이에게는 흰색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것이 풍습으로 전해져오고 있다.

카네이션은 어버이날 때 기본으로 넣어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달아드리 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 과연 부모님들은 꽃선물을 줄

아하실까?
(50세 이상을 위한 라이프케어 멤버십 브랜드 '전성기'가 최근 50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자식에게 가장 받고 싶은 어버이날 선물'을 조사한 결과, 카네이션을 선택한 응답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현금'(56%)이었다. 이어 친필 편지(18%), 효도 관광(14%), 가전제품(8%), 공연·영화 티켓(4%)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

또한 SNS를 달군 엄마가 보낸 카톡 사진이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꽃으로 통칠 생각 하지 마라'라는 문구가 적힌 사진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만큼 꽃을 바라는 부모님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어쩌면 한명도 없지 않을까란 생각도 든다.

대학생들의 방학 로망



5월5일 "어린이날"



소년을 시상한다. 또한, 어린이체육대회·옹변대회·글짓기대회·가장행렬·묘기시범·밤불꽃놀이·어린이 큰잔치 등을 거행하기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어린이날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린이날은 빨간날로 지정되어 있어 어린이들만의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간다면, 많은 행사들을 한다.

그것뿐 아니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연예인들이 선행을 하기도 했다.

미쓰에이 수지가 보육원에 인형을 기부하기도 했으며, 아이유는 초록우산어린이 재단에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고, '삼둥이 아빠' 송일국은 네팔 지진피해 아이들과 병으로 고통받는 국내 아동들을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1억을 쾌척하는 등 연예인들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정혜진 기자

5월 5일.
1919년의 3·1 독립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고자, 1923년 방정환(方定煥)을 포함한 일본유학생 모임인 '색동회'가 주축이 되어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였다가 1927년 날짜를 5월 첫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1945년 광복 이후에는 5월 5일로 정하여 행사를 하여왔으며, 1961년에 제정, 공포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하였고, 1973년에는 기념일로 지정하였다가 1975년부터는 공휴일로 제정하였다.

이 날은 어린이가 따뜻한 사랑 속에서 바르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며, 불우한 어린이들이 인간으로서의 긍지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 위로하고,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사업의 숨은 유공자를 발굴, 표창하는 한편,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를 실시하여 체력향상 및 정서함양을 도모한다.

여러 가지 행사는 각 시·시도, 시·군 및 단 단체별로 어린이가 참석하는 기념식을 거행하는데, 기념식전에서는 「대한민국어린이헌장」을 낭독하고 착한 어린이·청

대학생들이 꿈은 로망 1순위는 바로 "해외여행"이 뽑혔다.잡코리아는 대학생 335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의 로망과 현실'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3.4%가 '배낭 하나 메고 해외로 떠나는 배낭여행'이라고 밝혔다. 방학 로망 2위에는 '다이어트 성공 후 완벽한 몸짱이 되어 워터파크 놀러가기(11.0%)', 3위는 '조기 취업 성공해서 회사 다니기(10.1%)'가 나왔다. 이어 '휴양지에서 즐기는 여유 넘치는 바캉스(8.4%)', '토익 성적, 자격증 취득으로 스펙 업(8.1%)', '워킹홀리데이나 해외 봉사활동으로 전문 넓히기(7.5%)' 순이었다.

그외 '아침형 인간이 되어 버리는 시간 없이 알찬 하루 보내기', '국도

대장정', '모두가 부러워할만한 이색알바로 경험 쌓기'등도 나왔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로망으로 가득한 생각일 뿐 현실적으로 하기는 어려웠다. 로망이 실현될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9%가 '그저 꿈의 이야기일 뿐 현실은 이와 다르다'고 답했다.

여름방학의 로망이 이루어질 거라고 대답하는 응답은 1학년이 약 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학년은 73%가 '로망과 현실은 다르다'고 답해 현실의 벽을 느끼게 했다.

대학생들이 예상하는 올 여름방학의 현실은 '돈을 목적으로 한 재미없는 알바만 하다 방학 끝!'이 31.2%로 1위였다.

고구려대학교, "외국인유학생 남도 문화 체험"가져

고구려대학교(총장 김형배) 어학원에서는 4월 7일(화) 남도의 문화를 탐방하고 직접 체험하는 "외국인유학생 남도 문화 체험"을 가졌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김윤호 어학원장 및 대학 관계자들과 외국인유학생 26명(베트남 18명, 중국 8명)이 참여하여 보성 대원사·송광사와 티벳 박물관에서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현장체험학습을 하였다.

특히 이날 베트남과 중국 유학생들은 보성 대원사에 위치한 티벳 박물관을 방문하여 티벳의 역사와 불교, 문화, 민속 등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실을 관람하고 티벳에 대해 배움의 기회를 가진 뒤에 대원사 벚꽃 길을 걸으면서 봄의 향취에 취하기도 하였다.

남도 문화 체험을 다녀온 베트남과 중국의 외국인유학생들은 '한국에는 기독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양한 종교가 서로 잘 융합되어 있는 것 같고, 한국의 사계절 중에 봄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다'라고 하면서 '티벳의 역사와 현실을 이해하는 계기가 돼서 매우 유익한 체험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윤호 어학원장은 '우리대학에 유학중인 외국인유학생들을 위한 남도 문화 체험을 체계적이고 활발하게 진행하여, 단순한 체험과 탐방이 아닌 남도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고 몸으로 체득하여 한국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현장 체험학습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현재, 고구려대학교에는 총 43명(남15명, 여자28명)의 다양한

국적(베트남, 중국, 몽골)을 가진 외국인유학생과 어학원생들이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국제적 소양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수학과 있으며, 이들의 열정을 채워주기 위해 어학원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라북도 전주 한옥마을

전주 한옥마을을 다녀왔다. 내가 전주한옥마을에 길에 딱 들어선 순간 길거리 공연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걸으며 공연을 보며 즐기고 있었다. 길을 걷다보니 외국인들이 정말 많았다 그리고 길거리에는 부채, 지갑, 먹거리 등 많은 것들이 있었다. 나는 부채

가 정말 예쁜것이들이 많아서 부채를 사러 들어갔는데 그 곳에는 여러이쁜 부채들도 정말 많이 있었고 부채 박물관처럼 옛날에 쓰던 부채들부터 오늘날 쓰던 부채들까지 전시해 놓았다.

그리고 먹거리들은 문어꼬치, 코코넛, 만두, 수제 초코파이, 추러스, 한식식당 등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한복을 입은 사람들도 봤다. 그리고 한옥마을에 이쁜 곳들이 많아서 사진을 정말 많이 찍었다. 600년된 나무 앞에서 사진도 찍으면서..

그리고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봤다.

그리고 한옥마을에 전통성당은 정말 화려하고 예뻐다. 그렇게 크고 화려한 성당은 처음 봐서 계속 사진 찍으면서 구경을 했다 성당 안내부는 진짜 외국에 온 것 마냥 새로웠다. 잠시 외국으로 착각할 정도였다.

하루 동안 한옥마을을 구경하였는데 정말 먹을 것도 많고 볼거리도 많았고 재미있었다. 전주가 멀어서 금방 집으로 돌아와야 해서 다 구경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내가 보고 싶었던 것들을 보고 사진도 많이 찍고 맛있는 먹을거리도 먹어서 재밌는 하루가 되었다.

다음에 전주 한옥마을을 갔을 때는 한번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보도록 시도를 해 보아야겠다 그래서 더 특별한 추억을 남길 것이다. /편집부

고구려대학교 노인복지센터, "효(孝) 나들이" 행사 가져



고구려대학교 노인복지센터(센터장 박송희 교수)는 지난 4일 가정의 달을 맞아 나주지역 어르신 40

명을 초청하여 고창읍성과 새만금방조제 등 전북지역으로 '효(孝) 나들이'를 다녀왔다.

이 날 행사는 나주 주몽 콜택시(회장 김충만)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노인복지센터의 직원들과

주몽 콜택시 회원들이 하나가 되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곁에서 모셨다.

어르신들은 고즈넉한 고창읍성과 마치 바다 위를 달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새만금방조제 등을 둘러보고, 야외에서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한껏 들뜬 표정으로 모처럼 만의 나들이를 즐겼으며, 행사가 진행되는 내내 어르신들과 콜택시 회원 및 센터 직원들이 함께 하는 모습은 마치 자식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하는 것처럼 훈훈함이 물씬 배어 나왔다.

나들이를 다녀온 어르신들은 '그 동안의 외로움을 잠시나마 떨쳐버리고 이웃들과 같이 평소에 가고 싶던 곳을 다녀오게 되어 즐거운 시간이 됐다'며 고구려대학교 노인복지센터와 주몽 콜택시 회원들

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이번 행사를 후원한 주몽 콜택시는 고구려대학교 노인복지센터와 함께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나들이 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김충만 회장은 '어르신들이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자신이 더 흐뭇하고 즐거웠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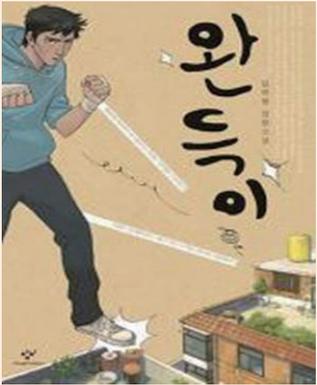
나주시에 거주하는 4,000여명의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노인복지센터 박송희 센터장은 '지역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다양한 문화행사와 효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기획·운영 하겠다'고 하였다.

| 학생문예 |

완득이

김려령(소설가)

강민희(치위생과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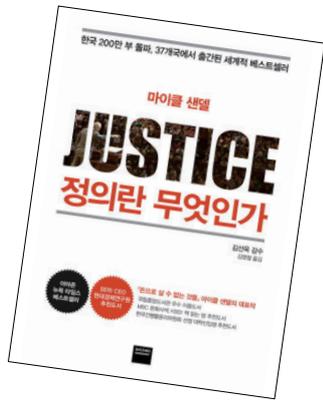


가난하고 공부는 못 하지만 싸움은 잘하는 도완득이라는 아이, 카바레에서 일하는 난쟁이아버지, 베트남어머니, 남민구 삼촌 등 독특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 본명이 이동주인 똥주 선생님은 완득이의 담임선생님일 뿐더러 옆집 옥상에 사는 사람이다. 처음에는 무슨 선생님이 학생들과 다른 사람한테도 욕을 많이 해서 정말 나대는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역시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뒷부분에 완득이한테 하는 행동을 보니 참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았다. 똥주선생님과 항상 티격태격 말싸움을 하며 지내면서 완득이가 운동을 배우고 똥주 선생님이 옆집 옥탑방에 살다 보니 가족들도 똥주 선생과 친하게 지낸다. 카바레가 망하여 전국의 5일장, 3일장을 돌며 돈을 한푼이라도 더 벌으려고 춤추러 다니는 아빠와 민구 삼촌 그러던 어느날 똥주 선생이 완득이의 엄마 얘기를 꺼내면서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고 어쩌다 집을 떠났는지까지 알려주게 되면서 완득이는 베트남 엄마에 대한 관심은 점점 깊어지고 결국 엄마를 만나게 되고 처음엔 서로 존댓말을 쓰며 어색하게 지내다가 진짜 모자지간처럼 서로 따뜻하게 지낸다. 정윤하는 완득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전교 1등일뿐 아니라 얼굴도 예쁜 학생이다. 예전에 전교 2등인 염준하와 사귀었지만 야한 만화 사건 때문에 염준하, 정윤하 모두 왕따가 된다. 하지만 염준하는 전학을 가고 혼자 가 된 정윤하는 도완득에게 관심을 보이게 된다. 정윤하가 도완득에게 달라붙을 때 도완득이 정윤하를 무시하게 되고 정윤하도 그런 도완득을 외면한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 다시 둘이 잘 지내면서 같이 운동도 다니고 교회도 가끔 다니면서 점점 사이가 가까워진다. 그 둘을 사귀는 것으로 본 정윤하의 어머니가 도완득에

게 정윤하는 대학을 가야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한다는 둥 간절하게 부탁을 하면서 정윤하의 어머니가 둘을 잠시 못 만나게 한다. 그러던 어느날 정윤하가 자신의 부모님이 여행을 갔다면 둘이 다시 만나게 된다. 둘은 사이가 엄청 가까워져 그 이후 둘은 사귀게 된다. 이 둘의 사이를 아는 완득이가 다니는 킥복싱학원의 복싱 관장님과 똥주 선생, 역시 똥주 선생은 자꾸 도완득은 놀리지만 둘이 다니는 것을 맘에 들어 한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욕이 조금 많이 나왔지만 조금은 정겹게 느껴졌다. 먼저 도완득은 자신의 아버지가 키가 작으니까 직업도 좋지 않고 공부도 못하고 친구도 없고 가난해서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도 당하게 된다. 그런데 애들이 도완득을 싸움을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인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도완득을 무시워한다. 이런 도완득의 성격이나 행동을 보면서 교훈을 받았다. 완득이 처럼 이러한 상황에 놓여진다면 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땀땀하게 살 것이다!

게 지낸다. 카바레가 망하여 전국의 5일장, 3일장을 돌며 돈을 한푼이라도 더 벌으려고 춤추러 다니는 아빠와 민구 삼촌 그러던 어느날 똥주 선생이 완득이의 엄마 얘기를 꺼내면서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고 어쩌다 집을 떠났는지까지 알려주게 되면서 완득이는 베트남 엄마에 대한 관심은 점점 깊어지고 결국 엄마를 만나게 되고 처음엔 서로 존댓말을 쓰며 어색하게 지내다가 진짜 모자지간처럼 서로 따뜻하게 지낸다. 정윤하는 완득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전교 1등일뿐 아니라 얼굴도 예쁜 학생이다. 예전에 전교 2등인 염준하와 사귀었지만 야한 만화 사건 때문에 염준하, 정윤하 모두 왕따가 된다. 하지만 염준하는 전학을 가고 혼자 가 된 정윤하는 도완득에게 관심을 보이게 된다. 정윤하가 도완득에게 달라붙을 때 도완득이 정윤하를 무시하게 되고 정윤하도 그런 도완득을 외면한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 다시 둘이 잘 지내면서 같이 운동도 다니고 교회도 가끔 다니면서 점점 사이가 가까워진다. 그 둘을 사귀는 것으로 본 정윤하의 어머니가 도완득에

베스트 셀러



정의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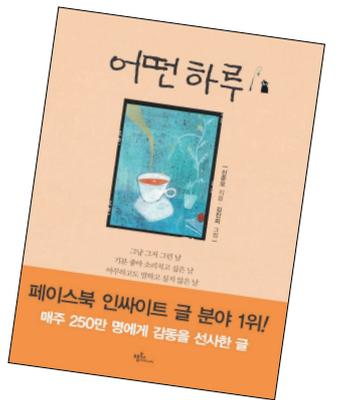
로 쓴 책으로, 현재까지도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강의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 책은 구제 금융, 모병제, 대리출산과 같은 현실 문제를 비롯해 경로를 이탈한 전자, 교통의 대가를 계량하는 시험과 같은 사고 실험을 주제로 삼아, 위대한 사상가들은 '정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가령, 저자는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는 다수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을 지지하지만, 인간의 존엄성 문제에는 도덕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저자는 이 책에 '정의'에 대한 확고한 답을 내리지는 않는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27세에 최연소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를 발표하면서 세계적 학자로 인정받은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의 대표작이다. 샌델 교수가 실제로 하버드에서 강의한 수업 'Justice(정의)'를 바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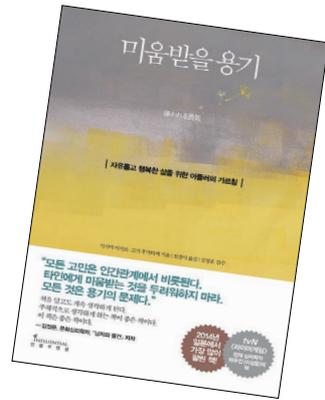
어떤 하루



『신준모의 성공연구소: 마음을 성형하는 사람들』은 SNS에서 매일 올린 글들을 모아 엮은 책으로, 페이스북 인사이트 글분야 1위, 매주 250만 명이 읽고 있는 글로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책의 글들은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뼈아픈 충고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 책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로 나누어 하루하루를 채워갈 수 있는 글들로 구성했다. 저자는 하루하루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쌓여가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루를 대하는 마음의 소중함'을 강조한다. 일, 사랑, 꿈, 인간관계, 가족, 우정이 어우러져 하루를 채워가고, 쌓여가면서 인생을 채우는 것임을 일깨운다. 꿈을 꾸는 당신에게 용기가 필요한 계절 봄, 가슴에 냉정과 열

정을 품고 달려가야 하는 계절 여름, 마음이 흔들려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계절 가을, 그리고 기적을 바라고 또 바라는 계절 겨울. 사계절에 마음을 담아 책을 읽다 보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 하루를 채우는 것들이란 어떤 것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선사하며,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미움받을 용기



있고, 누구나 행복해 질 수 있다. 단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한 철학자가 있다. 바로 프로이트, 융과 함께 '심리학의 3대 거장'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알프레드 아들러다.

『미움받을 용기』는 아들러 심리학에 관한 일본의 1인자 철학자 기시미 이치로와 베스트셀러 작가인 고가 후미타케의 저서로, 아들러의 심리학을 '대화체'로 쉽고 맛깔나게 정리하고 있다. 아들러 심리학을 공부한 철학자와 세상에 부정적이고 열등감 많은 청년이 다섯 번의 만남을 통해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인가'라는,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렸다.

심리학 제3의 거장 '아들러', 용기의 심리학을 이야기하다!
어릴 때부터 성격이 어두워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할지, 그는 오늘도 고민이다. 이런 그의 고민에 "인간은 변할 수

영화추천



지하철 보관함 10번에 버려져 이름이 '일영' (김고은)인 아이. 아이는 오직 쓸모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차이나타운에서 '엄마' (김혜수)라 불리는 여자를 만난다. 엄마는 일영을 비롯해 쓸모 있는 아이들을 자신의 식구로 만들어 차이나타운을 지배한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엄마가 일영에게는 유일하게 돌아갈 집이었다.



2015년, 디즈니가 선보이는 영화<투모로우랜드>는 천재들이 만든 미래 세계 '투모로우랜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SF 어드벤처. 자연 재해, 금융 위기, 시위와 폭동 등 매일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로 현대인이 비판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시기, 영화 <투모로우랜드>는 다가올 멸망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해줄 장소 '투모로우랜드'가 시공간 너머에 존재한다는 흥미로운 설정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고구려대학교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

■ 전형일정

전형구분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	총원 합격자	
				발표	등록
수시	1차 2015. 9. 2~2015. 9. 24	2015.10. 8	2015.12.11~2015.12.14	2015.12.15~2015.12.23	
	2차 2015.11. 3~2015.11.17	2015.11.25			
정시	1차 2015.12.24~2016. 1. 5	2016. 1. 8	2016. 1.29~2016. 2. 2	2016. 1.29~2016. 2. 2	2016. 2. 3~2016. 2.27
추가모집	2016. 2. 3~2016. 2.27				

■ 모집학과 및 정원

학과명	입학정원	학과명	입학정원
치위생과 ★	40	사회복지과	00
피부미용과	00	아동노인복지과	00
토목조경과	00	다문화복지과	00
건축에너지학부	00	평생교육복지과	00
유아교육과 ★	64	사회복지상담과	00
의료관광복지과	00	아동보육복지과	00
평생직업복지과	00	청소년복지상담과	00
공연예술복지학부	00	영유아보육복지과	00
재활복지스포츠학부	00	합 계	977

★3년제